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6.30.(토) ~ 2018.7.27(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기숙사는 산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변에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숙사 바로 앞에 수영장이 있어서 수업이 끝난 후 언제든지 들어갈 수 기숙사 시설은 수압이 약하고 가끔 노란색 물이 나오는 것 빼고는 괜찮았습니다.
수업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다음 날 레벨테스트 후 반이 결정됩니다. 수업내용은 7권의 책으로 단어, 읽기, 토익 스피킹 등등 여러 책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4시간은 그룹 4시간은 1대1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과제는 가끔 있고 밤에 잠깐 10 정도 투자하면 끝나는 정도입니다. 선생님들은 정말 정말 정말 착하시고 질문하면 천천히 차근차근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번역기를 맨날 사용하였는데 수업시간만큼은 번역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Activity	-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Activity , 마닐라 투어 각자 쇼핑할 돈 챙겨오시면 좋습니다, 요트투어는 가지 못 하였습니다.ㅠㅠㅠㅠ, 안바야코브, 바비큐

	파티 바비큐 파티는 하기 전에 대표가 돈을 걷어 음식을 사온 후 진행됩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지만 오후 5시까지 항상 수업이 있기 때문에 많이 상관은 없었습니다. 다만 수업이 끝난 후 밖으로 많이 놀러나가기 때문에 우산은 필수입니다~~
안전	경찰 분들이 많아서 안전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은 막 좋은 편은 아니지만 에어컨도 나오고 온수도 나와 한 달 동안 살만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 한식으로 밥이 나와도 처음에는 적응을 못해 많이 먹지 못하였지만 한 일주일 지난 후부터는 적응되어서 괜찮았습니다.
교통	수업이 끝난 후 선착순으로 이름을 적으면 하버 포인트까지 데려다주는 샌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학교가 많아질수록 운영하는 인원수가 적어져서 아쉬웠습니다. 이름을 적지 못해도 10~20분 기다리면 FB가 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콜택시를 부르면 1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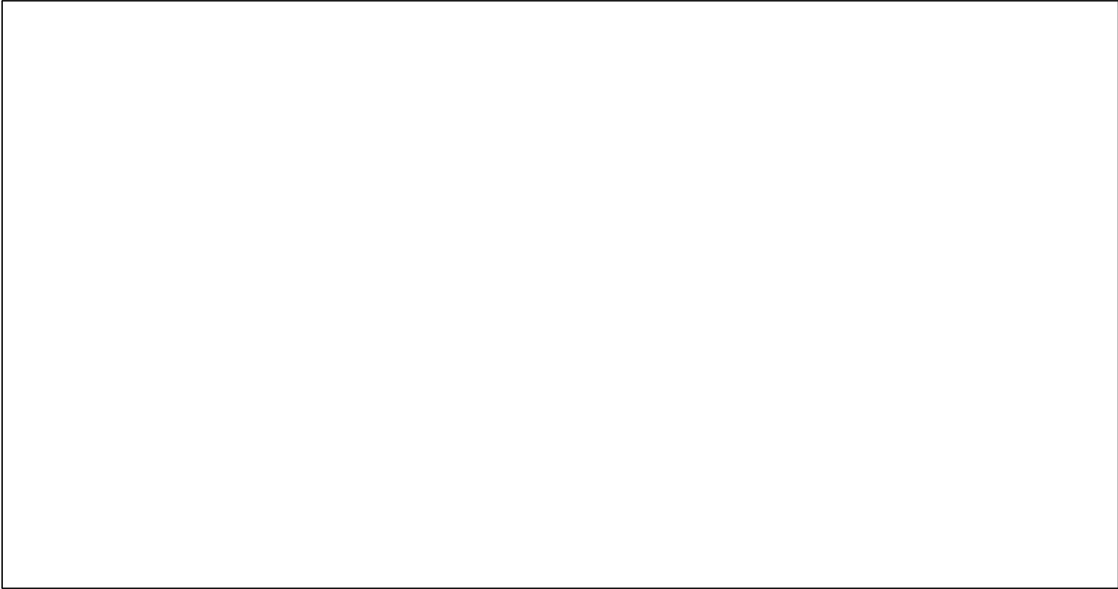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7,000	출국 전 사전 납부
바비큐 파티	400페소(8천원)	
관세	600페소(만이천원)	
안바야코브 식사	1000페소(2만원)	
개인 사비	430달러(45만원)	
합계	1,217,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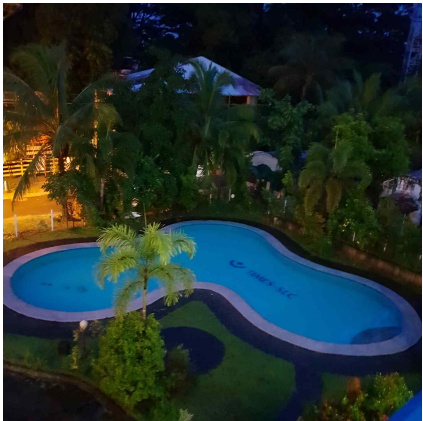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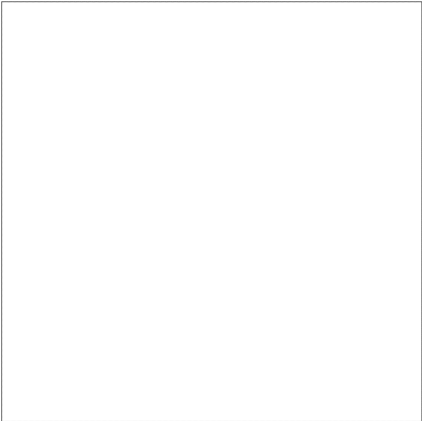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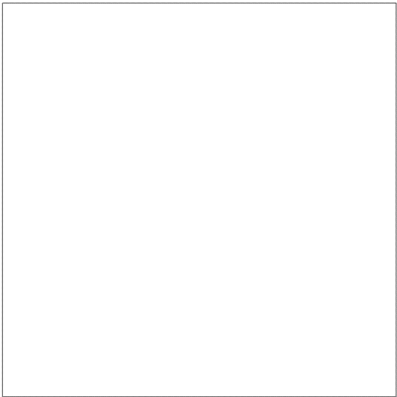
선생님들 선물 꼭 사 가세요 살 곳이 많긴 한데 한국 물건을 사 가시면 더 의미 있고
좋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8분입니다 수업하는 교실이 출기 때문에 꼭 걸옷을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상비약을 챙겨오세요 감기약 소화제 소염제 등등등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한 달 동안 정말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음식도 안 맞고 힘들
었지만 선생님들과 한 달 동안 함께하면서 정도 많이 들고 배운 것도 많아 좋은 프로그
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트투어를 다른 학교들은 다 하고 갔지만 날
씨 때문에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기숙사에서 본 수영장 야경	경치가 진짜 예쁜 안바야코브 바다
	

마닐라 투어	수빅베이
	
마지막 액티비티 4팀으로 나눠서 다같이 돌아다니면서 미션을 클리어하면 퍼즐을 줌 퍼즐을 완성하면 이기는 게임	졸업식 졸업장